

1970년대 이후 美陸軍의 改革

元 泰 載
(陸本 大領)

1. 序 言
2. 베트남戰爭의 影響
3. 中東戰爭의 影響
4. 改革過程
5. 結 言

1. 序 言

筆者는 걸프전(Gulf War)이 한창이었을 때, 戰爭史上 처음으로 TV로 중계되는 전쟁을 관전하면서, 마치 나 자신이 勝利者가 된 것같이 흥분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세계 최강의 美軍이 무모한 이라크軍쯤 이기는 것이 무엇이 대단하길래 매스컴들이 저렇게 설치나 하며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걸프전에 관한 다양한 글들을 읽으면서 美軍의

승리는 결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헌신적이었던 많은 軍人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더구나 美軍은 20여 년간의 改革을 통해 거듭난 軍이었건만, 마치 호랑이가 한 마리 토끼를 쫓을 때도 온 힘을 다해 질주하듯이 이라크軍을 상대로 하여 신중한 계획과 치밀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現代戰은 總力戰이라는 개념하에 經濟力이 곧 군사력이며, 결국 최후의 승리는 전쟁 潛在力이 우위인 나라의 차지라는 견해에 쉽게 동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武器의 體系와 性能, 그리고 기습작전술이 고도로 발전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현존 군사력이 곧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바로 그 점이 우리 大韓民國이 우세한 經濟力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軍事力을 경계하는 이유인 것이다.

걸프戰의 승리는 어느 1개 軍이나 國家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며, 未來戰에 있어서 이러한 各軍 또는 各國간의 상호 의존과 협력은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이미 1958년에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미국 대통령은 陸·海·空軍 各軍에 의한 별개의 전쟁은 이미 사라졌다고 천명한 바 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軍의 단일하고도 통합된 노력을 통해 싸우게 될 것이다. 戰略 戰術의 기획은 완전히 통합되고 戰鬥部隊는 統合指揮하에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고의 효율적인 武器 體系로 장비되고 단일 지휘체제하에 놓여 일사불란하게 싸우도록 조직된 군으로 발전해야만 한다.¹⁾

1) Brigadier General Robert H. Scales, Jr. *Certain Victory: The US Army in the Gulf War*(Washington, D.C :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US Army : 1993), p. v.

걸프戰은 아이젠하워의 비전이 옳았음을 증명했으며, 또 그렇게 싸워 승리했다. 특히 美陸軍은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작전을 통해 베트남戰의 악몽과 고통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였다. 겨우 100시간의 地上戰鬪를 통해 미육군은 성공적인 지상戰鬪軍으로 재탄생했던 것이다.

이 짧은 기간 동안 機械化 部隊는 역사상 어느 지상군 부대보다도 더 많은 전투력을 더 빠르게 더 멀리 기동시켰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獨逸軍의 가장 효과적이었던 電擊戰보다도 2배 이상이나 되는 1일 평균 95km를 기동했다. 헬기 機動部隊는 적 후방 160마일이나 되는 곳에 1개 사단의 모든 전투요소들을 이동시킴으로써 역사상 최고의 空中包圍作戰을 성공시켰다.

미육군은 걸프戰이 있기까지 과거 전쟁중 初期戰鬪에서 제대로 승리를 거두어 본 적이 없었다. 전통적으로 대규모의 常備軍 유지를 거부해 온 미국은 통상 주요전쟁이 끝나면 신속한 動員解除 조치를 취함으로써 또 다른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임해야 했다. 1812년 英國과의 전쟁 이후 韓國戰爭에 이르기까지 미군은 항상 초기전에서 敵들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역사상 美國의 승리는 항상 초기전에서 병사들이 엄청난 피를 흘린 대가였던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戰 이후 美國은 反戰 여론에도 불구하고 냉전체제로 인해 동원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규모 군을 유지했으며, 오히려 획기적인 개혁을 통해 초전대응 能力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군사적 敗北가 때로는 軍改革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경우가 있다. 普魯士아 陸軍은 1806년 예나(Jena) 戰役에서의 치욕적인

패배를 통해 샤른호르스트(Scharnhorst)와 그나이제나우(Gneisenau) 등의 大改革家들을 길러 냈으며, 결국 1866년과 1870년에 각각 오스트리아軍과 프랑스軍을 격파할 수가 있었다. 또한 2차大戰 당시 독일군의 電擊戰(Blitzkrieg)도 1차大戰에서 독일군이 패배한 결과로써 나타나게 된 것이다.

韓國陸軍은 1948년 창설 이후 韓國戰爭을 거쳐오는 동안 적의 직접적인 무력남침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전투력 강화를 위해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본다. 그러나 대체로 임기응변적이고 그 發展方向이 目標指向的이지 못했던 점도 또한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韓國陸軍이 장기적 안목에서 지향해야 할 발전목표와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專門職業軍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改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베트남戰 이후 약 20년에 걸친 美陸軍의 改革過程을 살펴봄으로써 軍改革과 관련한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베트남戰爭의 影響

'70년대 초 베트남으로부터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채 철수했던 美軍은 이후 한동안 자조적이며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현상유지에 급급한 集團이 되고 말았다.

당시 유럽 주둔 美陸軍의 40%는 대마초 등 麻藥服用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7%는 헤로인 中毒者들이었다. 독일 주둔군의 경우, 범죄나 탈영사건이 빈발했으며 12%의 兵士들은 前科者들이었다. 兵營 내에서의 人種間의 갈등과 폭력 그리고 각종 범죄는 本土로부터 유럽과 한국 주둔 미군부대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兵士들은 심지어 下士官과 將校 및 그 家族들에게까지도 공격을 일삼았다. 베트남에서 군사작전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도 手榴彈으로 상관을 살해하는 下剋上(Fragging)이 계속되었다. 1969~1971년간 미육군 수사당국은 수류탄 투척을 포함한 下剋上 사건이 8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5명의 將校 및 下士官이 살해됐다고 보고했다.²⁾

당시 美軍은 兵士들의 군기뿐만 아니라 일반사회 내의 질서도 흔들리고 있었던바, 이는 베트남 사태로 인한 미국민들의 集團의 挫折로 인한 현상이었다. 젊은이들의 징병 거부 현상이 보편화된 결과, 미육군 兵士들의 자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40%의 병사들이 高等學校를 졸업하지 못했으며, 41%는 정신적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4급 판정을 받은 자들이었다. 군입대 기준의 저하는 軍紀와 訓練水準의 저하를 가져왔다.

1974년에는 징집대상의 11%인 2만 명의 병사와 14%의 전투장비가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13개 常備師團 중 겨우 4개 師團만이 전투준비가 완료된 상태에 있었다. 이를 두고 한 陸軍少領은 뉴욕 타임즈紙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忿怒感을 이렇게 표

2) Dr. Thomas Barn, "Fragging : A Study," *Army*(April 1977), p. 46.

현했다: “당신은 어리고 응석받이 같은 저 멍청한 친구들을 한번 보시오. 그들은 쿠바軍조차도 이길 수가 없는 자들이오.”³⁾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下士官과 젊은 將校들이었다. 1973년 해리스 여론조사(Harris Poll)는 美國民들은 軍職業을 상대적 존경도에서 청소원의 바로 ‘위’ 정도로 보고 있다고 폭로했다. 결국 수많은 초급간부들이 좌절된 채 직업을 떠났다.

그러나 용기 있는 많은 指揮官들은 군에 남아서 狀況을 개선하고자 했다. 과거 패튼(George Patton) 將軍의 부하였던 에이브럼스(Creighton Abrams) 大將은 육군으로 하여금 오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과감한 改革에 나서도록 이끈 장본인이었다. 그는 參謀總長 재임기간(1972~1974)중 전투준비가 되어 있는 陸軍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演說을 수없이 반복했다: “여러분은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戰爭에 대비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피와 犧牲의 대가를 치루어 왔습니다. 나는 戰爭을 원치 않지만 우리가 전쟁에 대비하지 않음으로써 지불한 人命의 損失을 생각하면 戰慄을 느낄 뿐입니다.”

그는 사기가 침체되고 冷笑的이던 군 간부들에게 愛國心과 誠實性, 그리고 正直性和 獻身 등의 가치관들을 다시 심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년간의 재임기간중 陸軍 내에 새로운 精神的 風土를 정착시켰으며 將兵들에게 改革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⁴⁾ 그의 강력하고도 신중한 개혁 추진은 많은 指揮官들, 특히

3) Drew Middleton, “Armed Forces’ Problem : Finding Good Volunteers,” *New York Times*, 17 April 1974, p. 21.

4) Lewis Sorley, *Thunderbolt*(New York : Simon and Schuster, 1992), pp. 333~

유럽주둔 지휘관들을 고무시켰다.

유럽 주둔군 지휘관이던 데이비슨(Michael Davison) 將軍은 문제 병사들을 兵營에서 몰아내기 위해 1973년부터 불시 마약단속 권한을 발동하고 범법자에 대한 신속한 전역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가 취해진 지 4個月도 안 되어 유럽주둔 美陸軍은 1,300여 명의 폭력범들과 마약 복용자들, 그리고 기타 범죄자들을 軍에서 추방했다.⁵⁾

또한 데이비슨 將軍은 주로 흑·백 병사들간의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下士官들도 적극 이 계획에 동참함에 따라 그 동안 兵士들이 직접 大隊長에게 불평불만 사항을 제기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어 온 兵士相談室(enlistedmen's councils)도 점차 폐지되었다.

웨이언드 將軍과 데이비슨 將軍 등에 의해 부대 내의 軍紀綱과 秩序는 신속히 회복되어 갔지만, 병사들의 삶의 質的改善은 예산 문제로 인해 '70년대 말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70년대 중반 4등급 병사들의 1/3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이는 徵兵制였던 월남전 당시보다 5배 이상 증가된 수치였다. 특히 유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兵士들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큰 난관을 겪기도 했다. 병사들은 생계를 위해 副業을 갖거나 식량구호카드를 얻어야만 했다.

384. 에이브럼스 將軍은 암으로 인해 1974년 육군 참모총장직을 물러났으며, 웨이언드(Fred Weyand) 將軍이 그 뒤를 이었다.

5) Larry Carney, "USAREUR Boots Out 1300 Troublemakers" *Army*(March 1974) p. 6.

3. 中東戰爭의 影響

1973년 10월 6일 시작된 제4차 아랍·이스라엘간의 전쟁은 敎理上的의 침체에 빠져 있던 美陸軍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變化하지 않는 戰法은 無用之物이 된다는 교훈을 일깨워 준 것이다. 開戰 당일날 이집트軍은 이스라엘軍의 바레브線(Bar Lev Line)을 통과하여 시나이 반도 깊숙히 진출했으며, 시리아軍 5개 사단은 골란高原(The Heights)에서 이스라엘軍과 격렬한 對戰車戰을 전개했다. 美國은 이후 16일 동안 이스라엘이 방어선을 회복하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해 가는 과정을 면밀히 지켜 보고 있었다.

이 戰爭은 두 가지 측면에서 美陸軍 改革에 영향을 주었다. 첫째, 그것은 나토(NATO)軍 및 바르샤바(Warsaw)軍과 유사한 현대식 장비를 갖춘 두 나라간의 최초의 대규모 충돌로서 이는 未來戰을 예측할 수 있는 유리한 근거가 되었다. 둘째, 戰鬥가 매우 근거리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짐으로써 美國政策當局者들은 침체에 빠져 있던 美軍의 유사한 강도의 전쟁수행능력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 전쟁으로 결국 철저한 軍現代化와 改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美陸軍 조사단이 시나이반도와 골란高原에서 목격했던 참담한 파괴현장은 地上戰 수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교한 改革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10月 戰爭에서는 특히 戰車와 歩兵火器의 정확성이 두드러졌다. 사거리 측정기(Range Finder), 아날로그 방식의 彈道 컴퓨터, 그리고 포탄장전기술 개선 등은 戰車의 원거리 정밀사격의 효율성을 높였다. 2차大戰 당시에는 700m 거리의 敵戰車를 파괴하는

데 평균 17발의 포탄이 소요되었으나, 1973년에는 1,800m 거리의 戰車를 파괴하는 데 단 2발이면 족했다. 당시 이집트는 대전차미사일로 비교적 구형인 쎄거(Sagger)를, 이스라엘은 3km 거리에서 90%의 명중률을 갖고 있는 토우(TOW)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⁶⁾

이스라엘軍은 아직도 戰車를 ‘戰場의 王子’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치명적인 대전차미사일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戰車 단독으로 戰場을 기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만일 전차가 미사일을 갖춘 적 앞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步兵 直射火力이나 砲兵火力에 의한 제압이 필요한 것처럼, 한 단위부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장의 제요소들이 협동 보조를 취해야만 했다.

이스라엘軍의 경험에 따르면 이제 美國은 수적으로 우세한 소련을 제압하기 위해 더 이상 기술적 우세에만 의존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소련제 T-62 전차는 이미 미군의 M60 전차의 맞수가 되었으며, 소련군의 BMP 步兵 戰鬪車輛은 처음으로 등장한 기습적인 장비였다. 특히 미사일과 대공포의 발달로 미국은 더 이상 近接航空支援에 의해 소련의 우세한 지상화력을 상쇄시킬 수가 없었다.

이제 火力의 量的인 優勢에 이어 質的으로 對等한 수준까지 추격해 온 소련군을 美陸軍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개인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敎理改革을 통해 우세한 戰法을 창안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것은 革命的인 改革을 통해서만이 가능했다.

6) 당시 兵士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발견되는 것은 타격 가능하고, 타격 가능한 것은 곧 죽일 수 있는 것이다(What can be seen can be hit, and what can be hit can be killed).”

4. 改革過程

가. 訓練 改革

1973년 7월 창설된 陸軍 訓練敎理司令部(TRADOC :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의 初代 司令官이 된 드뤼(William Depuy)將軍은 개혁초기 수년 동안 訓練敎理 및 리더십 개발에 관한 制度 改革을 이끌었다. 그는 2차대전 당시 상대적으로 더 조직화되고 잘 훈련된 적들에 대해 정예화되지 못한 初級 指揮官들과 훈련받지 못한 兵士들이 무모하게 희생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었다. 30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美陸軍의 전투능력과 리더십에 불만을 표시하고 獨逸軍에 대한 동경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未來戰의 초점을 정글전이 아닌 中部유럽 平原에서 소련군과의 대결에 맞추었다. 그는 또한 전투시 공격에 앞서 강력한 직접화력에 의한 사전 제압과 部隊單位의 훈련, 그리고 步戰砲 협조방법을 중요시했다.

그의 制度改革에 관한 아이디어는 第2次 世界大戰 당시 제90사단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제90사단은 노르망디 上陸作戰에 대비하여 2년 이상이나 훈련을 계속했으나, 그 내용은 射擊과 道路 행군 그리고 교실강의 위주의 비현실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上陸作戰이 개시된 지 6주 만에 사단의 보병 전투력은 100%, 그리고 보병장교는 150%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강력한 적의 방어진지에 대해 전차 및 포병화기에 의한 충분한 공격준비사격도 없이 육탄으로 정면공격을 반복함으로써 무모한 희생을 자초했던

것이다.

노르망디 上陸作戰時 제90사단의 小隊長의 생존 가능기간은 단 2주에 불과했으며, 5개월 후 벌어진 발지(Bulge) 戰鬥에서는 10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改善을 위한 희생의 대가는 너무 컸다. 따라서 드뤼 將軍은 초기전투에서의 희생자를 최대한 줄이고 적응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것이 訓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쨌든 베트남戰 이후에도 훈련방법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든 敎育은 야외실습을 무시한 채 교실에서 암기식·주입식으로 이루어졌으며, 射擊도 사격장에서만 실시되었다. 따라서 TRADOC의 敎育훈련 개혁은 “實戰같이 훈련하라!(An army must train as it fights!)”는 슬로건하에 먼저 初級將校들을 강의실에서 野外로 몰아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中·少尉들은 戰爭原則을 공부하는 대신에 사격술과 整備를 실습하고 필요한 전투기술에 대한 숙달훈련을 받았다.

또한 복잡한 전투행위는 서로 다른 일련의 個人任務로 세분화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개인의 수준 측정을 통해 中·大隊 및 여단급 부대의 훈련수준을 측정하는 이른바 陸軍訓練評價計劃 (ARTEP: The Army Regulation Training and Evaluation Program)이 1975년부터 등장하였다. 그러나 ARTEP은 실제 野戰에서 수준에 미달되는 部隊들을 찾아내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指揮官이 地形을 이용하고, 人員과 火器를 배치하는 직관적 능력이나 리더십 등 좀더 質的이며 난해한 無形的 要素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1) 전투훈련센터(The Combat Training Center)의 창설

한편, 드뤼 將軍은 평시에 피를 흘리지 않고 적응강도를 높이는 실전적인 훈련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했던바, 기이하게도 美海軍의 경험이 육군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베트남전 초기에 월맹군 미그(MIG)機들과의 空中戰에서 海軍 조종사들은 겨우 2:1의 격추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조종사들의 손실의 40%는 처음 3회의 교전(engagement) 이전에 발생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생존한 조종사들의 90%는 해당 전투가 끝날 때까지 생존했다. 이에 따라 1969년 海軍은 신임 조종사들에게 처음 3회까지는 위협이 없는 임무만을 주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신임 조종사들에게는 월맹측 공중전술에 능숙한 조종사들을 對抗軍으로 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실전과 같은 공중전 훈련이 끝난 후에는 다시 녹화된 내용을 통해 개인의 短點들을 교정해 나갔다. 그 결과 1969년 이후부터 월맹군과의 戰爭이 끝날 때까지 海軍의 敵機 擊墜率은 6배나 급상승했다.

드뤼 將軍은 육군에서도 유사한 방법을 이용해 보도록 TRADOC의 훈련담당 副司令官인 고먼(Paul Gorman) 少將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적인 어려움에 있었다. 飛行機는 자체에 레이더와 컴퓨터가 장비되어 있어서 모든 飛行經路와 機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상의 感知裝備들과의 연결이 매우 쉬웠다. 그러나 계곡이나 숲속에서 서로 교전 중인 수천의 兵士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일일이 추적할 수 있을 것인가? 고먼 將軍은 그 해답 또한 해군의 室內射擊 방법에서 구했다. 즉 소총에 레이저를 장착하고 표적지에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소위 마일

즈(MILES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장비로 확대 발전시켰다. 마일즈는 해군의 레이저 권총 방식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사살자 수의 기록과 사용장비의 구별은 물론, 소총으로 병사가 아닌 전차를 명중시켰을 때는 無效化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部隊와 차량 및 개인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주 컴퓨터에 연결시키도록 고안되었다. 국립훈련센터(NTC : National Training Center)를 위해 발전시킨 핵심 기계장치(CIS : Core Instrumentation System)는 비디오 카메라와 다중무선수신 설비까지 갖춘 최신 시설이었다.

고먼 將軍은 MILES와 CIS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훈련장을 포트 어윈(Fort Irwin)에 세웠다. 훈련장의 CIS는 MILES가 제공하는 자료들, 즉 사살인원·차량이동·무선교신내용·部隊 및 중화기 위치·발사탄수와 명중발수 등에 관한 정보를 즉각 제공하고 전투지역 전반에 관한 비디오 화면도 제공했다. 이때 觀察者(observer-controller)들은 부대를 순회하며 事後講評(after-action reviews) 자료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었다.

NTC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받은 부대는 전투능력과 생존성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특히 피평가부대 지휘관을 난처하게 만드는 對抗軍(OPFOR : opposing force) 聯隊는 소련식 전술로 훈련된 정예부대였다.⁷⁾ 일단 교전이 끝나면 4시간 후에 실시되는 事後講評에서 피평가부대 지휘관은 자기 부대의 잘못된 기동과 대항군에게 격파당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보면서 관찰자의 냉혹한 비평을

7) 대항군은 전술적으로 뛰어난데다 수적으로도 우세했기 때문에 피평가 부대는 처음에는 결코 이길 수가 없었다.

받아야만 했다.

이제까지 指揮官의 失手が 부하들 앞에서 이토록 철저히 폭로되는 對抗軍과의 무제한 전투훈련 형태는 전례가 없었다. NTC에서의 10여 회의 훈련과 아칸소(Arkansas)州的 포트 차피(Fort Chaffee)에 있는 合同準備訓練센터(Joint Readiness Training Center)와 독일 호헨펠(Hohenfels)에 있는 戰鬥機動訓練센터(Combat Maneuver Training Center)에서의 보강훈련을 받고 난 부대의 전투기량은 급속히 향상되었다.

1984년 美陸軍指揮參謀大學(CGSC :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에서 발행된 「미국의 첫 전투들(Americans First Battles)」은 미육군 高級將校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 마지막 章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었다: “美陸軍은 이제까지 전투준비가 제대로 안 된 兵士들 뿐만 아니라 야전의 대규모 부대 지휘에 적절치 못한 사단·군단장들을 포함한 고급장교들 때문에 모든 전쟁의 초기전투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것이다.”

指揮參謀大學 總長이던 바트레트(Jerry Bartlett) 中將은 고급 지휘관들과 그 참모진들에게도 NTC에서와 같은 교육과정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단·군단은 야전에서 실제 기동을 시키기에는 너무 규모가 컸기 때문에 美陸軍은 워게임에 능숙한 統制官이 운용하는 컴퓨터상의 대항군을 이용했다. 이것이 바로 戰鬥指揮訓練計劃(BCTP : Battle Combat Training Program)으로서 被評價部隊는 자체참모 및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워게임을 수행해야만 했으며, 또한 통제관들은 언제라도 사단의 전투계획 전반을 점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將軍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事後講評을 실시할 것인가였다. 대령급 지휘관들에게도 공개적으로 責任을 추궁하는 것이 어려운데 하물며 將軍들에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陸軍은 전쟁지휘 경험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예비역 대장 3인에게 훈련 감독 및 평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이 고민을 해결했다. 당연히 많은 부대가 이 조치에 반발했지만, 參謀總長인 부오노(Car Buono) 將軍은 BCTP를 강행시켰다.

(2) 하사관 교육체계 改善

1990년 11월 말경 美陸軍 주임원사인 게이트스(Julius Gates)는 參謀總長인 부오노 將軍을 수행하여 소련을 방문한 바 있었다. 이들은 마침 키예프(Kiev) 근교에서 실시된 小隊 近接戰鬪 시범을 참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수전부대와 레인저부대에서 오래 근무했던 게이트는 아무런 감명도 받지 못한 듯 시범이 끝난 후 안내 중인 소련군 그로모프(Boris Gromov) 將軍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다: “아시겠지만, 美陸軍에서는 下士官들, 그것도 젊은 하사관들이 저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모프 將軍은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나도 알고 있소. 그 점이 바로 당신네 육군의 長點이오. 그러나 우리에게도 당신들 같은 하사관들이 없기 때문에 將校들을 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오.”

미육군 하사관들은 오랫동안 軍의 中樞로 인식되어 왔으며, 많은 權限과 責任이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10년여의 베트남戰爭 기간 동안에 하사관들은 肉體的, 精神的으로 어느 계층보다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 계속된 전투로 인해 수많은 人員이 죽거나 부상당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지치고 좌절한 채 軍을 떠나버

렸다. 더구나 남은 사람들도 俸給이 동결되어 生活苦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날이 갈수록 기강이 해이해져 가고 자신들의 權限이 침식되어 가는 것을 지켜 보면서 忿怒하고 있었다.

전쟁기간중 下士官團의 붕괴는 陸軍 수뇌부에게 하사관 양성과정을 점검토록 했다. 1969년 웨스트모얼랜드(William Westmoreland) 將軍은 장교들의 제도와 유사한 4단계로 구성된 하사관선발 및 양성제도를 만들었다. 基礎班(Primary Level)은 과거 하사관학교 과정과 유사했다. 初級班과 高級班(Basic and Advanced Level)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指揮力과 教育內容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뒤따랐다. 제4단계인 最高過程(Highest Level)은 1972년에 텍사스주의 포트 블리스(Fort Bliss)에 세워진 주임원사학교(Sergeants Major Academy)로서 이는 將校들의 陸軍大學院(Army War College)과 유사한 것으로서 하사관들에게 최고의 영예로 여겨졌다.

새로운 教育制度가 더 나은 하사관들을 양성함에 따라 부대 내에서 이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다. 젊은 하사관들은 자신의 임무에 대해 自信感을 보였으며, 봉급과 복지가 개선되면서 하사관들의 資質 또한 개선되었다. 1973년 주임원사학교 첫 졸업생들 중에는 겨우 8%만이 大學에 입학한 적이 있었으나, 바로 그 해에 下士官으로 입대하여 각 과정을 거쳐 18년 만인 1991년도에 이 학교에 입학한 하사관들은 88%가 대학에 입학한 적이 있었으며, 그 중 절반은 學位를 받았다. 또한 하사관들은 임무수행능력과 도덕성·健康·指揮能力에 대한 엄격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행히 ‘沙漠의 防牌(the Desert Shield)’ 작전이 전개되기 직전

하사관단의 改革이 완료되었다. 하사관들이 현명해지자, 이제는 다시 최고의 능력을 갖춘 將校와 指揮官들이 필요해졌다.

(3) 高級軍事課程(SAM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chool)

1982년 美指揮參謀大學 總長이던 리처드슨(William Richardson) 將軍은 기존의 장교 교육과정이 전쟁의 복잡한 작전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신설을 주장했다. 그 결과 指揮參謀大의 1年 修了者들 중 50명의 少數 精銳資源을 선발하여 2년간의 高級課程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들은 주로 컴퓨터 워게임과 電算教育을 통해 戰爭術을 연구했다.

1983년에 설립된 SAMS는 教育課程이 너무 혹독하여 教育에 대한 심적 부담 때문에 학생들은 이 과정을 ‘學術 遊擊學校(Academic Ranger School)’라고까지 불렀다. 또한 학생들의 엘리트 의식을 피하기 위해 졸업생들에게는 師團 및 軍團級部隊의 參謀 자리를 보장하는 외에는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았다. SAMS는 교육 모토(motto)로 독일 一般參謀部の 금언이었던 “자신의 外貌보다 더 나은 자가 되라!(Be more you appear to be!)”를 정했으며, 校長은 졸업생들에게 엘리트주의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고 겸양을 지닌 진정한 엘리트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最新 高級軍事敎理體系를 육군에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된 SAMS 교육은 기대보다 나은 효과를 가져왔다. 걸프戰이 시작되자, SAMS 졸업생들은 육군내 최고의 참모장교진으로서 眞價를 발휘했다. 그들은 모든 기획부서에서 戰略 및 作戰計劃과 시행에 깊이 간여함으로써 승리에 공헌하였다.

나. 敎理 改革

(1) 「FM 100-5 作戰術」

매우 실용주의적이었던 드뤼 將軍은 “敎理란 이를 수용해야 하는 軍人들 중 적어도 51%의 支持가 없다면 效果가 없다”⁸⁾고 생각했다. 그의 挑戰은 바로 아름다운 演奏를 위해 적어도 51%의 團員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고 무기력증에 빠진 그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새로운 交響曲을 작곡하는 것이었다.⁹⁾ 그가 재임 중 작곡한 交響曲은 바로 「FM 100-5 作戰術(Operations)」이었다.

그는 敎範을 쉬운 英語로 기술하도록 하고 표지도 전통적인 황갈색 대신에 위장색으로 하며, 루스 리프(Loose-Leaf)식 製本法을 도입했다. 그 이유는 바로 野戰에서의 실제 적용을 통해 개선된 內容을 그때 그때 갈아 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또한 자신이 1976年版 FM 100-5의 많은 부분을 직접 집필했다. 그는 次期戰爭 발발시 初期戰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침을 야전에 제공하고자 했다. 獨逸 국경지방인 풀다回廊(The Fulda Gap)이 가장 유력한 차기 전장지역으로 상정되었다. 그 밖에도 유사시 火器 조작 및 사용법과 피아 화기제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등 초기전에서 화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0월전쟁을 극도의 短命性(short-lived), 消耗性, 破壞性으로 표현되는 미래전의 전형으로 간주하여 FM 100-5에서는 이스라엘과 과거 독일이

8) Paul F. Gorman, *The Secret of Future Victories*(Alexandria, VA : Institute for Defence Analyses, October 1991), p. 86.

9) Scales, *Certain Victory*, p. 13.

敵이 機動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압도적인 火力을 자유로이 구사하여 적을 麻痺시켰던 敎訓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이 교범에서는 防禦第一主義는 아니지만 독일식의 방어개념인 積極防禦(active defense)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은 병력을節約하여 결정적인 時間과 場所에서 敵戰鬪力에 대해 기습적으로 가격하는 것으로써 그 目的은 바로 독일 국경 부근에서 소련의 침공을 차단하는 데 있었다. 소련군의 작전개념은 기갑부대와 후속제대들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군 최전방 부대의 우선적인 임무는 소련군 각 제대의 戰車를 격멸시킴으로써 방어 중인 우군으로 하여금 신속히 再編成하여 후속하는 적이 사거리 내에 들어오기 전에 전투준비를 완료토록 하는 것이었다.

FM 100-5는 발간되자마자 美陸軍 史上 최대의 교리 논쟁을 야기시켰다. 비판은 주로 이제까지 미육군의 作戰術이 유럽 육군, 특히 독일 육군의 영향으로 인해 機動에 초점을 맞추어 오던 것이 과거 미국식 개념인 火力 消耗戰(firepower-attrition warfare) 중심으로 回歸하는 문제와 화기의 효율성 등에 집중되었다. 또한 그 동안 空中輸送과 空中攻擊을 중요시해 오던 輕步兵(light army)들은 다른 전장지역과 다른 전쟁방식을 배제한 채 유럽에만 집중된 교범내용을 비판했다. 美陸軍은 베트남에서 과거 독일군의 電擊戰 이론만큼이나 획기적인 空中機動戰 방식을 개발했었다. 따라서 경보병 지지자들은 未來戰은 제3세계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헬리콥터가 지배하는 기동전 방식에 애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드워 將軍에 대한 가장 큰 반대는 積極防禦개념에 집중되었다. 많은 비판자들은 그의 戰術은 勝利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敗北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스타리(Donn Starry) 中將은 드뤼 將軍과 함께 FM 100-5를 집필한 장본인이었지만, 독일의 풀다峽谷(The Fulda Gap)의 방어 임무를 띤 軍團長이 된 후에는 오히려 드뤼의 理論에 공개적으로 異議를 제기한 첫 인물이 되었다.

그는 東·西獨 국경을 사이에 두고 최소한 4個軍 규모의 바르샤바 戰車部隊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드뤼 將軍의 積極防禦교리는 적의 제1제대를 격퇴하기 위해 大隊 및 여단급 부대들을 배치하는 데는 매우 유용했다. 그러나 스타리 將軍은 적의 제2, 3제대가 전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방어선을 재편성할 만한 예비대와 시간을 갖고 있지 못했다. 패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는 적의 제2, 3제대의 機動速度를 둔화시키거나, 兵力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스타리 將軍이 드뤼 將軍의 뒤를 이어 TRADOC 司令官이 됨으로써 육군의 作戰術(operational art)이 재정립되고 空地戰鬪敎理(AirLand Battle Doctrine)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批判에도 불구하고 1976년판 FM 100-5가 미육군의 훈련 및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변화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how to fight)’에 관한 많은 野戰敎理의 출현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드뤼 將軍의 의도대로 FM 100-5는 육군 내에서 상호의견 및 정보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沙漠의 暴風(Desert Storm)’ 작전의 기초를 제공한 空地戰鬪 개념은 바로 「1982년판 및 1986년판 FM 100-5」에서 정립된 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우수한 병력을 유인하고 유지하느냐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이 군기강과 교육훈련

및 교리에 대한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2) 空地戰鬪敎理(Airland Battle Doctrine)

美陸軍은 1973년 10월 아랍·이스라엘 간의 戰爭과 1979년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부터 몇 가지 敎訓을 얻었다. 그것은 주로 積極防禦개념에 대한 문제점들로서 전투에 있어서는 불가촉한 요소들, 즉 無形의 要因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82년판 FM 100-5는 처음으로 戰場의 결정적 요인은 兵力比率이 아니라 무형적인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리더십이 화력 및 기동과 함께 전투의 한 요소로 실리게 되었으며, 訓練과 動機賦與, 그리고 大膽性 — 기회포착, 즉 빠른 판단, 명확한 의사소통 및 과감한 행동 — 등이 강조되었다. 여기서는 또한 공지전투에 있어서 주도권(initiative), 중심(depth), 敏捷性(agility), 그리고 同時性(synchronization) 등 4대 基本原則이 소개되었다. 당시 TRADOC 司令官이던 오티스(Glenn Otis) 將軍¹⁰⁾은 공지전투의 규모와 複合性으로 인해 드워 將軍이 FM 100-5에서 陸軍作戰에 부여했던 좁은 전술적 안목에서 벗어나 전술과 전략 사이의 중간 수준인 作戰術의 개념을 도입했다. 그리하여 1986년판 FM 100-5에서는 이미 空地戰鬪는 戰爭의 作戰術과 같은 개념이 되었다.

공지전투에서는 적의 제2, 3제대를 격파하는 방안이 강조되었다. 적의 후속제대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10) 스타리(Donn Starry) 將軍의 후임자.

어 기선을 장악해야만 했다. 이 教範에서는 2段階 공격방법이 제시되었다.

제1段階 方法은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해 원거리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적들을 조기에 포착하여 지연·교란시키고 타격을 가하기 위해 장거리 火力과 電磁戰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은 주로 제2단계 공격수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 전투 전열에 龜裂을 만드는 것이었다. 제2段階 攻撃手段은 전술 공군과 공격용 헬기의 지원을 받는 기계화 부대에 의한 신속한 기동이었다. 이때의 火力은 단지 적을 소모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전투를 결정짓는 수단이며, 우군 機動部隊가 적 후속제대를 파괴시키기 위해 후방 깊숙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적을 고착 내지는 교란시키는 수단인 것이다.

또한 적후방을 깊숙히 타격하기 위해서는 좀더 높은 위치에서 戰場을 觀察하는 능력이 필요했다. 1976년판 교범에서 사단장의 생각은 주로 전술적인 것으로써 戰線地域에서의 直接 火力戰 상황을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아직 전장에 도달하지 않은 적후방 제대들을 미리 발견하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좀더 높은 차원의 視角이 필요했다. 縱隊隊形으로 공격해 오는 적 3개 제대의 길이는 중심이 150km에 이르며 戰線까지 접근하는 데만 3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1982년까지도 軍團長들은 그렇게까지 멀리 미치는 武器體系나 觀測裝備를 갖고 있지 않았다. 空軍만이 중심 작전 능력을 갖고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심공격과 後方遮斷 작전을 주요임무로 간주하여 왔으나, 그것은 직접적으로 지상군 군단장들의 기동계획을 위한 적 차단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

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1979년 초부터 美戰術空軍司令部(the Tactical Air Base)와 TRADOC은 적의 대공화기를 무력화시키는 육군 화력과 적 제2제대에 대한 공중차단을 상호 체계화하는 문제를 포함한 合同敎理開發에 착수했다.

또한 1984년에 육군참모총장인 위컴(John Wickham) 將軍과 공군참모총장인 가브리엘(Charles Gabriel) 將軍은 空地戰鬪 敎理의 합동 개발을 향상시키기 위한 31個項의 원칙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 도출을 위해 兩軍 合同開發 그룹은 1년간의 토의와 위게임 그리고 자유토론 과정을 거쳐 空中遮斷을 군단장 관심지역 내의 목표물에 대한 공격으로 재정의하고, 戰場空中遮斷(BAI: Battlefield Air Interdic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했다. 합의문 제21 조는 BAI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BAI는 地上軍 指揮官에 의해 선정된 적 地上目標에 대한 作戰과 지상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空中作戰이다. 그것은 원거리 중심 작전을 수행하는 기본수단으로서 적의 増員과 補給을 방해하고 기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적군을 고립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BAI는 敵 후속제대가 近接戰鬪에 가담하기 이전에 破壞 遲延 및 瓦解시키기 위한 手段이다.¹¹⁾

이로써 高級指揮官들은 作戰術과 合同戰術의 중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새로운 將校敎育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1) Scales, *Certain Victory*. p. 27(재인용)

다. 輕步兵 部隊의 復興(Light Forces Renaissance)

아랍·이스라엘 戰爭에서의 충격으로 인해 美陸軍은 중부 유럽에서의 기갑 및 기계화 부대 작전에 치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보병 部隊와 特殊作戰部隊를 경시하지 않았다. 에이브럼스 장군은 1974년에 2개의 레인저 대대를 창설할 정도로 고도의 훈련을 받은 特殊 步兵部隊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¹²⁾

레인저 部隊들의 부흥에 힘입어 육군 특전부대(the Army Special Forces)도 베트남전의 상처를 딛고 다시 부대 재건에 나섰다. 베트남戰 기간중 양적 팽창을 거듭했던 그린베레들은 다시 정예화되고, 비재래식 전쟁에 대비한 원래의 임무로 돌아갔다. 특히 이란 인질구출 작전에 실패한 후 부대의 역할은 對테러作戰과 고도의 장비와 훈련이 필요한 獨立作戰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80년 參謀總長이던 메이어(Meyer) 將軍은 포트 루이스에 주둔 중인 제9보병 사단을 대상으로 부대를 축소화·경량화시키면서 기동력과 화력을 증대시키는 시험을 시작했다. 규모를 축소화·경량화시키면서 생기는 전투력의 갭(Gap)은 첨단기술로 메꿀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1983년 참모총장이 된 위컴(John Wickham) 장군은 메이어 장군의 계획을 더욱 발전시켜 아예 경보병 사단들을 창설했다. 공중 수송수단의 제한과 저강도 戰爭의

12) 제1-75 레인저 步兵大隊가 조지아(Georgia)州的 포트 스튜어트(Fort Stewart)에, 제1-76 대대는 워싱턴(Washington)州的 포트 루이스(Fort Lewis)에 각각 창설되었다. 1970년대 들어 테러리즘이 급증하면서 레인저부대와 특수부대들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가능성 증대, 그리고 육군의 저하된 능력으로 미루어 경보병 사단의 역할이 增大될 것을 예견한 조치였다. 이러한 師團들은 유사시 反應時間을 단축하고 기갑 및 중보병 부대가 갈 수 없는 험준한 지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라. 5大 武器(The Big Five) 開發

소련은 베트남戰 이후 미군의 방황을 이용하여 武器開發의 기술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에이브럼스 大將은 우수한 병사들의 양성은 물론, 최고급 장비의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 안에서 그것도 대부분 人力開發에 집중 투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新型 武器를 개발하고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육군이 위기에 처해 있던 당시, 에이브럼스는 陸軍과 議會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유일한 軍指導者였다.

한편 육군 내에는 무기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집단들이 있어서 각각 자신들이 선호하고 있는 특정한 무기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었다. 에이브럼스는 우선 이러한 산만한 주장들을 통합 정리하여 장차 육군이 보유해야 할 5大 武器를 선정했다. 多目的 헬리콥터인 UH-60, 攻擊用 헬리콥터인 AH-64 아파치, 防禦用 미사일인 패트리엇(Patriot), 신형인 M1 에이브럼즈 戰車, 그리고 보병용 전투차량인 M2/3 브래들리(Bradley) 등이 그것이었다. 또한 議會 및 정부 내의 모든 이견들에 대해 그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다.

마. 사병복지 개선

모병제도가 도입된 이후 낙스 行政府는 1973년에 군인 봉급을 61%나 인상시켰다. 그러나 그 이후 계속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俸給은 7년 이상이나 동결되었다. 또한 초기의 봉급 인상은 주로 士兵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고참 下士官의 봉급이 新兵보다 겨우 30% 정도 더 많은 기현상들을 빚게 되었다. 그 결과 하사관들의 평균 구매력은 1973년에는 年間 2만 달러에 이르던 것이 1979년에는 1만 4천 달러로 떨어지고 말았다. 4인 가족의 移徙手當도 아이젠하워 行政府 이후 1마일당 10센트로 동결되어 있었다. 1979년경 가족을 거느린 兵士들이 미국 정부가 규정한 貧困階層에 속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자 육군 兵站當局은 이들에게 1천만 달러 상당의 요구호 대상자 식량카드를 분배해야만 했다.¹³⁾

에이브럼스 將軍으로부터 웨이언드(Fred Weyand) 將軍을 거쳐 로저스(Bernand Rogers) 將軍에 이르기까지 美陸軍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군 창설을 위한 개혁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해 나갔다.¹⁴⁾ 그러나 '70년대 말에 이르러 陸軍은 운영유지 및 훈련 예산에서 엄청난 삭감을 당했다. 1979년에는 本土 주둔 陸軍 10개 師團 중 6개 師團과 유럽주둔 4개 師團 중 1개 師團이 훈련 및 장

13) Orr Kelly, "The Crippling Squeeze on Pay in the Services," *U.S. News & World Report*(March 31, 1980), p. 49.

14) 에이브럼스 大將은 육군을 16개 常備師團과 8개 豫備師團으로 개편하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비부품 부족으로 전투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병사들의 자질도 급속히 하락하고 있었다. 미국 젊은이들의 지적수준을 상·하 두 계층으로 나눌 때 上層(50%)에서 충원된 숫자가 1973년에는 49%에 달했으나 1980년에는 20%로 하락했으며, 이 해에 충원된 新兵들 중 50%만이 高卒 출신이었다. 또한 입대한 兵士들 중 약 40%가 군기문란 및 적성불량으로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도태되었다.

그러나 1979년의 이란王 축출사건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미국은 비로소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1980년 이란에 잡혀 있던 ‘미국인 인질 구출작전’의 실패는 베트남戰 이후 미군의 作戰能力이 최저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었다. 부서진 해병대 헬리콥터와 충돌한 공군 C-130 수송기의 모습, 그리고 작전에서 드러난 혼란과 지나친 중앙통제, 빈약한 통신수단 등은 그 동안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그 동안 예산감축으로 인해 낙후된 장비교체와 신무기 도입이 지연되고 훈련이 축소되고 있었으나, 육군 지도층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資源의 兵士들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전투준비를 달성하는 데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志願兵 制度로 인해 國民들 중에는 가장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자들이 주로 충원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陸軍은 ‘국민권을 제한당한 자들(범죄자)’로만 구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¹⁵⁾ 우수한 자원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미국 젊은이들로 하여금 육군에 복무하는 것이 자신들에

15) Scles, *Certain Victory*, p. 16.

게 유익하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육군의 新兵 募集을 책임지고 있던 서먼(Maxwell Thurman) 少將은 야전에서 단기 복무 중인 將校와 下士官들을 불러모아 이들에게 新兵을 모집하고 직접 훈련시키는 方案을 채택했다. 신병 모집장소도 거리에서 高等學校로 옮기고 지역별로 人口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募集人員이 할당되었다. 또한 그는 참모차장인 베시(John Vessey) 대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議會로부터 5억 달러 상당의 募兵豫算도 획득했다.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Be All You Can Be)”는 구호는 미국 젊은이들에게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다. 육군 내의 福祉改善과 긍정적인 陸軍像 弘報에 힘입어 육군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미지, 즉 흥미롭고 도전하는 성격의 하이테크(high-tech) 集團으로 인식되었다.¹⁶⁾

한편 議會는 군인 및 그 가족들의 生活苦에 눈을 돌려 1981~1982 會計年度에 군인 봉급을 25% 인상 조치했다. 당시 陸軍의 조사에 따르면 우수한 병사가 군에 입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大學 學資金 때문이었다. 의회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학자금(GI Bill)’을 증액시키고 또한 ‘大學 進學基金(Army College Fund)’을 설치한 후 병사들의 자질문제는 급속히 개선되었다.

그리하여 1991년도에는 新兵 지원자의 98% 이상이 高卒學歷이었으며, 75%가 知的水準에서 上層에 속하고, 1%만이 최하층에

16) Willian Bowman, Roget Little, and G. Thomas Sicilia, *All-Volunteer Force After a Decade: Retrospect and Prospect*(Washington, DC: Pergamon-Brassey's, 1986), p. 270.

속했다. 또한 41%가 육군의 대학진학기금의 수혜를 신청했다. 병사들의 자질향상에 따라 군기강 解弛指數도 떨어졌다. 脫營과 無斷離脫은 80%, 재판 회부는 64%가 감소되었으며, 藥物濫用 指數도 1979년의 25%에서 10년 후에는 1% 미만으로 줄어들었다.¹⁷⁾

바. 總兵力 運用政策(Total Force Policy)

한편 미국 行政府와 議會는 本土의 防衛力을 유지하면서도 對外戰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군병력의 적정규모를 놓고 항상 논쟁을 벌여 왔다. 어쨌든 78만 명의 제한된 병력으로는 군사력의 확대는 고사하고 육군 16개 상비사단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체로 議會는 예산문제를 이유로, 그리고 軍 指揮部는 병사들의 질적 하락을 이유로 각각 병력 증원을 반대해 왔다. 따라서 유사시 부족한 병력은 豫備軍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만성적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에서의 대규모 전쟁에 대비하여 미육군은 월남전이 끝난 '70년대 중반부터 常備兵力과 州防衛軍(National Guard), 그리고 豫備軍(Army Reserve)을 합한 總兵力의 일정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의 構成比率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하는 이른바 總兵力 運用政策(Total Force Policy)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常備軍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戰鬥支援 및 戰鬥勤務支援體制를 대폭 강화하였다. 유사시 예비군 구성군 여단들은 최소한 30일간의 소집 및 동원훈련만 마친 후 원소속 師團에 합류하도록 되어 있었다.

17) *Ibid.*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총병력 운용정책에 의해 전투병력의 52%와 기타 병력의 67%가 주방위군 또는 豫備軍 소속이었다. 결국 7개 예비군 구성군 여단(그 중 6개 여단은 주방위군 소속, 1개 여단은 예비군 소속)과 주방위군 소속의 10개 예비군 구성군 대대들이 각각 유사시에 常備師團들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5. 結 言

‘이란 인질 救出作戰(Desert One)’에서 노출된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3년 후 실시된 ‘緊急激怒(Urgent Fury)’로 명명된 그라나다(Grenada) 침공작전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작전 계획상의 모순점과 陸·海·空軍 부대간의 불완전한 統合指揮 및 通信障礙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작전은 성공했다. 하지만 수만 명의 해군과 해병대 그리고 육군 및 공군 병력이 동원되었던 이 작전에서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것은 불과 몇 개의 소규모 경보병부대들, 즉 50~80명으로 구성된 5개의 육군 레이지 中隊와 소수의 特殊戰 部隊, 그리고 소수의 空軍 AC-130 武裝헬기들이었다.

어쨌든 그라나다 作戰은 미육군에게 새로운 자부심과 함께 이제까지의 개혁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信賴를 심어 주었다.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에이브럼스 將軍으로부터 시작된 改革은 점차 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위컴 將軍은 개혁의 정착을 위해 무형의 요소, 즉 리더십, 병사, 그리고

가족과 같은 일련의 주제들을 선정하고 매년 한 가지 主題에 대해 집중적으로 각종 計劃과 政策을 통해 強化캠페인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하여 그 동안 이룩된 미육군의 교리·교육 등에서의 改革成果는 군인적 윤리와 리더십의 강화 노력으로 인해 더욱 배가되었다.

防衛費를 늘리고 軍隊倫理와 規範을 強化해 온 노력이 野戰에서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통상 3年の 時間이 걸렸다. 1984년 獨逸 기갑부대의 한 연대장은 자신의 연대에 배속된 미군 전차대대의 전투기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했다고 인정했다. 군 문제를 주로 담당해 온 하들리(Arthur Hadley) 記者는 “1985년경에는 전차가 도로상에서 고장났을 경우, 일부 병사들이 수리하고 있는 동안 나머지 병사들이 도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되었다. 그러나 4년 전만 해도 더 많은 전차가 도로상에 고장난 채 서 있어도 병사들은 그 위에서 담배나 피우고 있었다”¹⁸⁾고 묘사했다.

더 많은 가시적 지표들이 軍의 전투준비 상태가 개선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1987년에는 美戰車兵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캐나다 陸軍 우승컵(Canadian Army Trophy)’을 받았으며, NATO軍 競演大會에서도 미군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¹⁹⁾ 한편 NTC에서 실시되는 훈련에서도 육군 부대들은 3~4회째 훈련에서 대부분 수적으로 압도적인 對抗軍(OPFOR)을 이길 정도로 戰鬥技倆이 향상되었다.

18) *Ibid.* p. 32.

19) *Ibid.*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제11기갑연대팀은 독일에서 열린 ‘보셀라거(Boeselager) 경찰대 경연대회’에서 처음으로 독일을 제치고 우승했다.

1986년 美議會는 골드워터-니콜스法(Goldwater-Nichols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합참의장의 지휘와 作戰司令官들의 權限을 強化하고 합동작전능력을 개선했다.

그 결과 3년 후인 1989년 12월 21일 실시된 ‘파나마 침공작전(Just Cause)’에서 美國은 지난번 그라나다 작전과는 다른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 작전에서는 합동작전으로 인한 지휘혼란이나 통신장애 등의 문제점이 완전히 극복됨으로써 나중에 실시된 ‘사막의 暴風’작전의 모델이 되었다.²⁰⁾

컬프전이 끝난 지 얼마 후 上院 軍事委員會(Armed Services Committee)에서 한 議員은 제24사단장인 매카프리(Barry McCaffry) 소장에게 어떻게 단 100시간 만에 勝利를 거둘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戰爭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100時間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15年이 필요했다.” 그의 이러한 所感은 바로 젊은 장교 시절에 베트남에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 후 平生을 陸軍 改革을 위해 헌신했던 세대들의 感想을 대변하는 것이다.

베트남戰 이후 암울했던 시기에 軍에 남아 軍을 지켰던 軍人들이야말로 육군을 개혁의 길로 이끈 주인공들이었다. 그들은 志願兵制度를 통해 미육군 사상 최초로 초기전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승리를 이끌어 낸 강한 陸軍을 건설했다. 그 지휘관들은 스스로 주도권을 장악하고 스스로 判斷할 줄 아는 독립적인

20) 이 작전은 美軍 指揮官들에게 세 가지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우선 새로 양성된 兵士들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둘째 작전부대 지휘관들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 부여, 그리고 셋째는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압도적인 전투력 투입 등이 그것이었다.

정신을 보유하고 있었다. 새로운 미육군은 싸우기 전에 이미 사상면에서 敵을 이기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하여 후세인(Saddam-Hussein)과 싸웠던 陸軍은 과거 20년 전에 베트남 정글에서 싸웠던 陸軍과는 기본적으로 달랐던 것이다.²¹⁾

21) 美陸軍 改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체로 세 가지이다. 첫째,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도그마에 빠지지 않는 건전한 개혁 아이디어와 소신이 중요하다. 둘째, 추진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51%의 支持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方法이 필요하다. 셋째, 改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젊고 유능한 엘리트 중심의 개혁집단이 형성되어야 한다. 결국은 미육군의 改革은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아이디어와 추진 방법이 제시되고, 헌신적이고 개혁적인 將校단이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